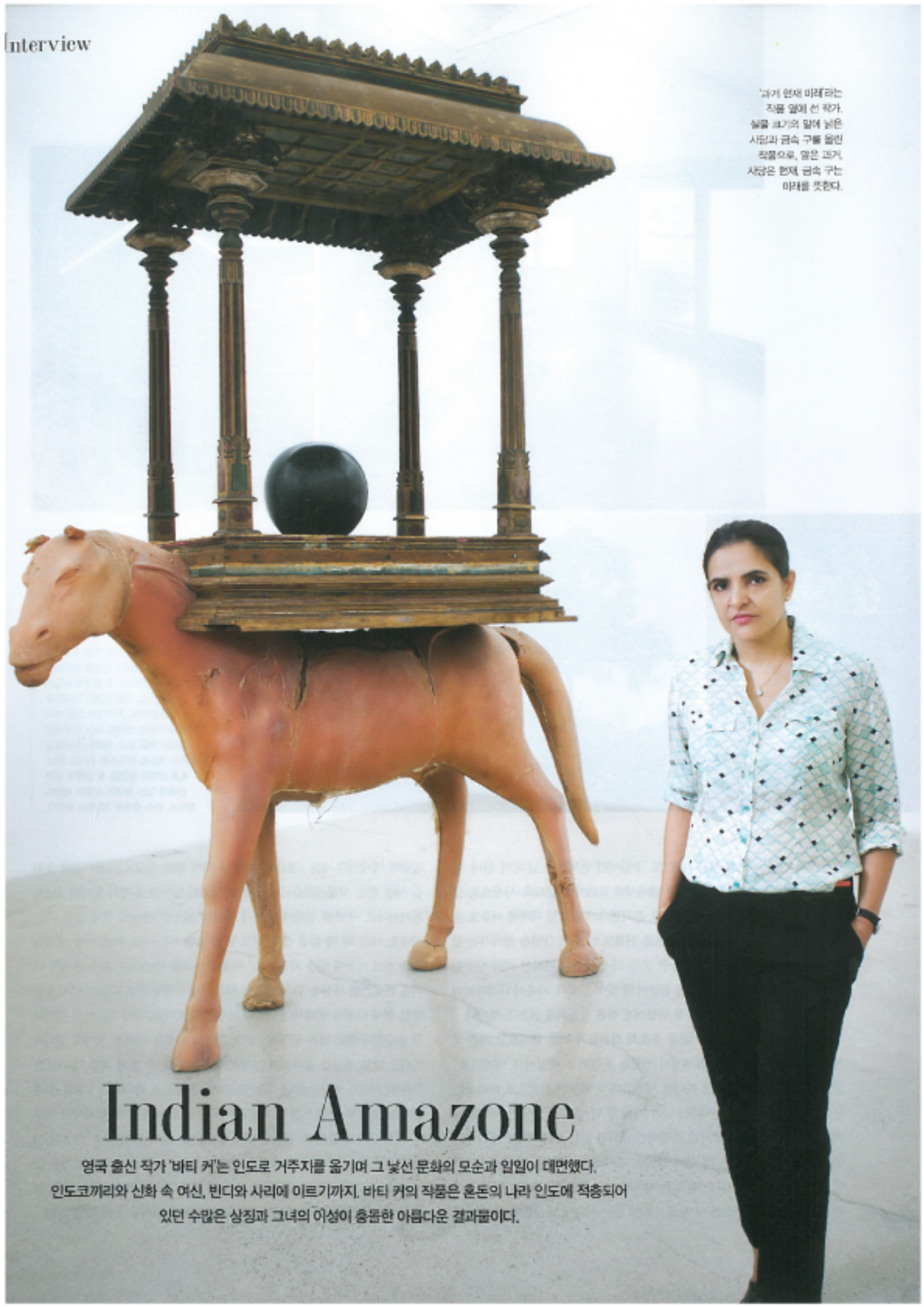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물 앞에 선 작가
실물 표기의 말에 낯은
사담과 금속 구를 올린
작품으로, 말은 과거
사담은 현재, 금속 구는
미래를 뜻한다.



Indian Amazone

영국 출신 작가 '바티 커'는 인도로 거주지를 옮기며 그 낯선 문화의 모순과 일침이 대면했다.
인도코끼리와 신화 속 여신, 빈디와 사리에 이르기까지, 바티 커의 작품은 혼돈의 나라 인도에 적층되어
있던 수많은 상징과 그녀의 이성이 충돌한 아름다운 결과물이다.

'바티 커(Bharti Kher)'라는 이름이 세계 미술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아마도 빈대를 입힌 거대한 코끼리 조각에서부터일 것이다. 차에 치인 코끼리 사진을 신문에서 보고 충격을 받은 작가가 이 비극을 조각으로 재현하고자 만든 작품으로, 실물 크기 코끼리 조각의 표면에 물방울 모양의 온빛 빈디가 피부처럼 뒤덮여 있다. 작품의 제목은 'The Skin Speaks a Language Not Its Own(피부는 자신의 것이 아닌 언어를 사용한다)'(2006). 문화의 표피성을 통렬하게 은유하는 동시에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이 작품은 금세 미술계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적인 컬렉터 프랭크 코헨은 자신의 컬렉션에 이 작품을 추가했고, 2010년에는 다시 소더비 경매에서 한 소장자에게 150만 달러에 팔리며, 인도의 여자 화가로는 최고가 경매 기록을 남겼다. 그뿐인가. 그 상징성 덕분에 이 작품은 인도의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단채전마다 단골로 불려다녔다. 2007년 아시아 퍼시픽 트리아엔날레, 2008년 도쿄 모리미술관을 거쳐 한국에도 당당한 족이 있는데,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인도현대미술전> 당시 전시장 한가운데 놓이기도 했다. 우연이었는지, 당시 전시 제목이 'Contemporary Indian Art: Open Your Third Eye(세 번째 눈을 떠라)'였으니, 힌두교에서 '세 번째 눈'을 상징하는 '빈디'를 주제로 사용하는 바티 커는 이로써 인도 현대미술의 아이콘으로서 존재감을 증명할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인도라는 나라의 역사·문화적 상징과 신화적 요소를 작품에 끌어다 쓰는 바티 커의 작품을 이해하는 건 때때로 한에 부치는 일이다. 인도 문화 사전 한 권을 독파한다 해도 의미를 짐작하지 못할 신비로운 층위가 그녀 작품 속에 가득하다. 작품마다 붙인 그 철학적인 제목은 또 어떤가. 온갖 미신 조각상을 테이블 위에 쪼르르 모아놓은 작품에는 '채식하는 사자,

미끄러운 물고기(A Vegetarian lion, a slippery fish)'(2013)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가 하면, 사멧트 막대에 흰투고 전통 의상 사리(Sari)를 둘둘 말아 적 갈아놓은 작품에는 '여인의 초상(Portrait of a lady)'(2012)'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식이다. 반인반수에 인종마저 뒤섞인 혼성의 조각을 보노라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직설이 떠오르다가도, 물이 빠져나간 해변 길기도 한 명상적인 빈디 페인팅 앞에 서노라면 이름답다는 찬탄이 길로 나온다. 조각과 회화, 직설과 은유를 오가는 바티 커의 작품은 한 작가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다양하고, 심지어 중구난방으로 보이게까지 한다. "저는 자극과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구나 작가에선 항상 열린 자세가 중요하죠. 작품의 소재나 표현법 역시 어느 하나에 고정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갤러리 큐레이터를 돌며 이야기했다. 자신의 창작론을 담담하게 설명했을 뿐이지만, 그 이야기는 마치 '어느 것도 구속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언처럼 비장하게 들렸다.

그녀의 낯빛과 작품을 볼 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예술가가 있으니,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다. 영국인 특유의 자적인 당당함,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깊이를 타고난 듯한 인도인 특유의 분위기가... 라몬메 동과 서의 두 인자가 결합된 작가들에게서 더 비범한 이야기가 읽힐 거라는 기대감은 때때로 주요하지 않던가. 그러나 명상적이고 철학적 깊이가 남다른 작업을 한다는 점을 뱉다면, 이들의 삶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아니시 카푸어가 인도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간 반면, 바티 커는 영국에서 인도로의 삶을 떠났다. 부모님의 나라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수보드 굿'을 만나 결혼하며 뉴델리에 정착했고 비로소 작가가 되었으니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물리적 언어뿐 아니라 작가로서 자기 언어를

1 지난해 홍콩 페르모 갤러리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인도 전통 의상 사리를 활용해 여성상의 무채를 미묘하게 묘사한다. 2 바티 커의 빈디 페인팅 연작과 설치 작품 'Time Lag'(2013)이 설치된 국제갤러리의 전시장 전경. 문과 기둥이 충돌하는 형태의 'Time Lag'시작은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형과 역학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더불어 직기의 실경에 따르면 좋은 예술을 만들 때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다.





1
Bharti Kher,
"Square a circle 3",
2012, Bindis on
composite panel,
Diameter: 150cm
/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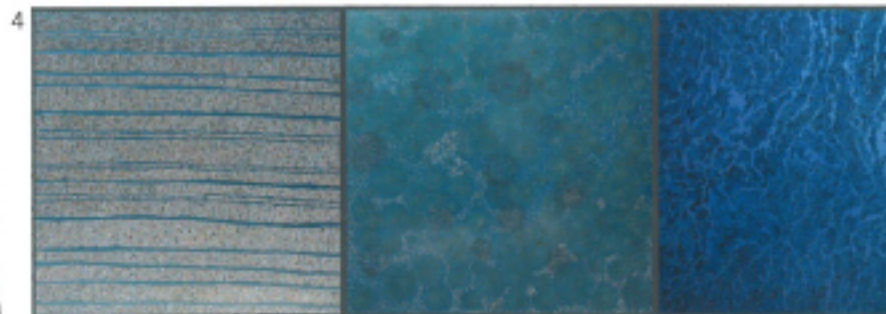


3
Bharti Kher / "The skin speaks a language not its own", 2006, Fiberglass, bindis, 142x46x195cm / Photo: Pablo Bartholomew/ Netphotograph.com / Collection KRAN NADAR MUSEUM OF ART



2
Bharti Kher, "Cloud
Walker", 2013,
Fiberglass, wooden
rake, cane, resin, stone,
steel, 186x115x93cm
/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바티 커 개인전
'Anomalies(기형)'는
10월 5일까지 국제갤러리
2, 3관에서 열린다.



4
Bharti Kher / "History" 2012 / Bindis on
painted board / 152x152x6cm / 5 feetx5
feetx2 1/2 inches / Courtesy Galerie
Perrotin, Hong Kong & Paris

Bharti Kher / "Chemistry" 2012 / Bindis on
painted board / 152x152x6cm / 5 feetx5
feetx2 1/2 inches / Courtesy Galerie
Perrotin, Hong Kong & Paris

Bharti Kher / "Geography" 2012
/ Bindis on painted board /
152x152x6cm / 5 feetx5 feetx2 1/
inches / Courtesy Galerie Perrotin,
Hong Kong & Paris.



5
Bharti Kher / "K. vegetation lion, a slippery fish", 2013, table, plaster, paint,
70 figures, 118x172x113cm /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1 마치 만다라를 연상케 하는 바티 커의 만다 페인팅 '제외의 눈'이라는 뜻을 지닌 '만다'를 반쪽에서 붙이는 이 작업은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개념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2 바티 커의 대표적인 연작 중 하나인 어신 시리즈. 막강한 성적 에너지를 대표하는 동시에 일탈의 변명이나 무고스러움이 없는 존재를 대변한다. 3 바티 커의 대표적인 'The skin speaks a language not its own'은 죽음 앞의 고카리를 묘사한 작품으로, 그 표면에 정자(sperm) 모양의 빈다가 붙어 있다. 4 자란에 울풍 비루탱 갈라에서 선보였던 '빈다 페인팅' 연작. 빈다라는 작은 재료로 우주를 표현하는 듯한 신비가 아름답다. 5 일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수많은 오브제를 모은 작품. 기능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내재된 수많은 의식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photo: Keith Park

예언하는 나무를
표현한 작품 'Waq Waq
Tree'(2009), 빈디 확인등
연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은유하는 조각 작품 '과거
현재 미래가 설치된
국제갤러리의 전시장 전경

모두 새롭게 재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인도는 저에게 완전히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음식만 익숙할 뿐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인도의 예술 세계를 접했으며, 동료 작가들과 함께 'forge'라는 예술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난 후 3년간은 인도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테이퍼케이스를 모으는 데 바쳤어요. 그렇게 인도의 문화에 대해 맹렬히 공부했고, 아주 천천히 작품을 만들며 작가가 되어온 것 같아요.' 여성을 향한 괴롭힘과 율가미가 가장 많은 동시에, 가장 많은 여신이 존재하는 모순으로 가득 찬 땅. 하지만 '혼돈'의 나라라고 묘사되곤 하는 인도는 예술가에게 그만큼 많은 걸코를 가진 땅이기도 했다. 그렇게 '바티 키'라는 작가의 언어가 된 것이 바로 힌두인이 민간 사이에 붙이는 장식품 '빈디(Bindi)'다. '인도에서 빈디는 매일 뱀다 붙였다 하는 리추일의 오브제예요. 또 '제3의 눈'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죠. 저는 빈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뱀다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왔어요. 하지만 처음 빈디를 사용했던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자면 의미가 많이 확장됐습니다. 제게 빈디는 미술적 재료인 동시에 코드나 암호 같아요. 이처럼 작은 재료로 무한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빈디라는 재료를 쓰는 이유죠. 이전 저만의 언어가 되었다고 봐야죠.' '빈디라는 일상적 오브제가 자신의 언어가 된 것에 대해 그녀는 진지한 설명을 보였다. '작가는 모르는 소재로 의미를 창조해낼 수 없어요. 대신 예술가가 문화적인 클리셰가 강한 것을 소재로 사용할 때는 대부분 풀구나무 시기를 합니다. 기존의 클리셰를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보이스가 작품에 돼 가죽과 기름 덩어리, 모피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독일 출신인 그에 게 그 소재가 어떤 기억과 경험을 의미하는지를 봐야겠지요. 익숙한 것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걸 봐야 하는 거예요.'

이국적인 재료에 대한 환상을 건어내고 본다면, 바티 키의 작품은 좀 더 명료하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무심코 받아들인 삶의 모순에 대한 허를 찌르는 질문이랄까. 전시장 안은 미신과 종교, 성에 대한 고정관념, 신화와 역사에 이르는 방대한 주제에 대한 실로 다양한 담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 나는 결코 게이미너스트 작가라는 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는 그녀의 말

을 상기시키는 작품이 있었으니, 6m에 이르는 사리를 나체에 휘감은 체어를 넘어가려는 한 여신의 조각 'Untitled'(2013)다. 이 조각은 의도치 않게 문명의 굴레가 석워진 모든 여인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졌다. 이모록 숭고한 얼굴을 지닌 여인이 한 손에 창을 들고 가어이 건너가려 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 곳일까. 그녀의 또 다른 대표작 'Waq Waq Tree'(2009)는 자연광이 들어치는 화이트 큐브에 실로 아름다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17세기 페르시아 조각상을 보고 구상했다는 '예언하는 나무'로, 합스러운 과실이 달려 있어야 할 자리에 흉악한 아수나 퍼골의 모가지들이 대동대동 달려 있는데, 그것이 바티 키가 꾸미낸 허상인지, 혹은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에서 빌린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했다. 다만, 괴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이 고무나무 아래서 마치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은 듯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맛보는 사실은 꼭 말해두고 싶다. 바티 키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성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작품을 만들 때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신 작업 같은 경우엔 아름다움보다 폭력적이기까지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 작품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그 양면의 모순을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스스로 구속받지만 않는다면, 굳이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요.' 사실 제마다 심비로운 레이어를 가진 작품들 사이에서도 가장 훌륭히 빛을 발한 것은 '바티 키'라는 인물 그 자체였다. 갤러리를 걸어 다니며 이토록 터져나올 듯한 에너지를 느껴본 것이 얼마 만인지, 그 에너지는 분명 '예술'에 대한 그녀의 숭고한 믿음과 강직한 추구에서 나온 것일 터였다. '예술이 세상을 바꾼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이 지닌 전통은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목격하는 것이 예술가의 전통이지요. 어디 불난리가 났다고 해서 그곳으로 난민을 구하러 가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묵묵히 작업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나의 메시지도 결국 그리 심오한 건 아니에요. 그 답에도 예술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게 결국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 공부는 끝까지 않고 계속될 거고요.' 바티 키에게 '인도 현대미술의 주동자(Protagonist)'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며 금기와 관습에 도전해온 자의 당당함이 배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